

Section II

정책논단

경제학의 근본 논쟁점 4가지

박 우 희

1. 경제학은 지금대로도 괜찮은가?

여기서 말하는 경제학은 신고전파경제학과 케인즈파경제학을 종합한 소위 ‘신고전파 종합’ 등 주류경제학을 이칭하며, 이 중에서도 특히 Arrow-Debreu 이 후의 현대형 식적모델링기법을 말한다. 이런 주류경제학은 이제 재점검할 때가 되었다. 즉 지금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870년대에 들어 한계효용혁명이 시작되었고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이 경제학(Economics)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여기서 고전경제학에서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의 관심을 포기하고 이것이 새로운 경제학을 창조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들은 자기들이 ‘과학적 경제학’을 개발하였다고 믿었고, 이때부터 이론적으로 경제이론이 사회과학을 떠나 자연과학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이 논리실증주의(Vienna Circle)에 와서 ‘통일과학(Einheitswissenschaft)’으로까지 이어졌고 그들은 이것이 ‘인간 인식의 기초’라 여겼다.

경제이론이 과학과 수학을 자기언어와 논리로 확실히 수용한 것은 G. Debreu가 공리적 일반균형이론을 개발했을 때였다. 이러한 공리적 접근의 발전으로 경제이론은 자기 충족적 형식구조에 빠지게 되고 실제 현상과 독립된 가설적 가정에 빠지게 됐다. 신고전파경제이론은 가족, 법, 사랑, 이혼, 정치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갔고, 경제분야를 넘어 드디어 ‘경제학 제국주의(economic imperialism)’가 되었다. 그 이유는 순수경제이론이 자연에 기초한 보편법칙이라 믿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형식화 수준을 높혀 예측에까지 과감히 뛰어들었다. 경제이론은 경제현상을 거대한 방정식, 그것도 실체가 아닌 양적 측정만으로 미분화된 방정식과 그 한 부분인 변수만으로 처리하

게 된다. ‘사회 물리학’을 넘어 균형의 존재와 적정성, 안정성, 유일해 검증만으로 풀이하려 한다. 1954년 Arrow와 Debreu의 논문 이후 확실히 새로운 경제학 패러다임을 형성하면서 지금의 주류경제학을 이루게 되었다. 현대 미시·거시경제학자들의 형식적모델링기법은 과학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물질주의, 수학주의, 한계주의(공리주의가 아님)를 사상으로 하며, 방법으로는 한계, 수학, 정량화, 형식화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과학성을 추구하면서 예측 모델로 정책까지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발전된 주류경제학은 이제 그 극에 달하였고 Pax Americana와 함께 세계 경제학계를 풍미,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때부터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1997년에 미국의 R. Merton과 M. Schölz에게 ‘파생금융상품가치평가기법’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한 것이 하나의 이론적 징표였고, 그리고 그 후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 발생이 또 다른 하나의 실제적 징표였다.

이제 현대주류경제학은 경제현상을 바르게 반영, 설명, 예측할 수 없음을 자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부터 진전된 선진경제사회의 소프트화 및 지식화 나아가 21세기에 들어선 후의 변혁은 경제구조의 변화, 취업구조와 소비구조, 투자구조의 변화 및 생활의 전반에까지 패러다임적 변화를 일으켰다. 즉, 첨단과학 기술발달에 의한 정보, 통신, 신소재, 나노, 로봇, 생명, 두뇌, 인지기술의 혁명적 발전의 혁신 그리고 금융규모 확대에 의한 금융, 증권, 투기자산 등의 운용비중 증대, 지식문화 창달로 인한 광고, 디자인, 아이디어, 서비스 등 여건의 변화 등은 생산요소의 기능과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외에 고령화, 복지, 환경, 융합, 세계화는 물론 생명, 정신, ‘초과 실제현상’이 중시되는 스마트화 현상 같은 또 다른 많은 변화도 야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생활 패턴과 관습, 사고의식도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제이론으로서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제 경제는 독립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다른 여러 요소와 결합, 융합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진전되고 있고, 단순한 경제학 vs. 사회학 vs. 심리학 등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융합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진전시키면서 사회경제의 구조변화를 설명하는 새로운 경제이론이 탄생되어야 하게 되었다.

특히 이런 주류경제학이 한국경제 현실에 적합한지 의문되는 시점에 당도하였다. 즉 ① 이것이 현실유리의 공리공담(空理空談)이 아닌지, ② 단순히 방법이 과학적이란 이유로 지지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과학과 실상의 공명현상(共鳴現象)이 일어나

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③ 수리경제학의 창시자라 자칭하는 미국대학을 통해 들어온 외래품 또는 검역되지 않은 ‘수입경제학’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④ 고전이 아닌 교과서로 배운다는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의 유형에 순응하면 할수록 형식으로서의 경제이론을 표출 레벨에 국한하면서 수용한다는 극히 특이한 현상을 야기하고 있지 않은지의 의문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요즘 사회경제, 경제발전, 환경, 제도, 역사, 마르크스와 관련된 여러 경제학도 수입되어 공존하고 있지만 이 모두 주류경제학의 지류에 불과하며, 미국에서 수입한 ‘미국경제학’이 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기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주류경제학의 직수입을 가능케한 것은 과학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1960년대의 식산흥업과 고도성장 수단으로 보여진 바와 같이 정책의 수단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고, 그의 사상 구조나 이념, 개념과는 아랑곳 없이 그대로 이식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퇴계, 이율곡과 같은 약간의 예외가 없지는 않지만, 조선왕조 전시기를 걸쳐 중국에서 직수입한 주자학, 그 중에서도 성리학이 무모하리 만큼 그대로 조선의 지배사상으로 고착케한 한국인의 정신적 전통 때문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입사관(導入史觀)을 넘어 내발사관(內發史觀), 즉 평행적 발전(平行的 發展)과, 내발사관 중에서도 국제주의(國際主義)와 특수주의(特殊主義)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 한국의 경제학은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이론을 도입, 소화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제는 경제학이 도입된 것이라 하더라도 경제학의 도입, 수용이 한국경제 자체의 독자적인 발전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가도 해명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같은 DNA를 지닌 종자도 토양과 기후가 다르면 다른 색과 형태의 꽃을 피우고 다른 열매를 맺기 마련인데, 하물며 의지와 이성을 가진 인간이 구성하는 사회에서야 경제이론이 수용된 풍토와 역사적 특성에 의해 새로운 역사적 개성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 아닌가? 어떤 용어나 개념도 본원적 발생지와 똑같은 기능적 함축성을 지닐 수만은 없는 것이다. 개념의 관념형태나 형식적 규정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개념의 내포(內包)와 외연(外延)은 변하기 마련이다. 인간관, 가치관과 연결된 경제학 즉 ‘인간의 인식수단으로서의 경제학’을 생각함은 바로 지금 우리의 경제학을 모색하는데 하나의 길잡이가 되리라 사료된다.

위와 같은 주류경제학의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서 정책불적합성 외에도, 특히 학생들의 교육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경제, 사회, 세상만사의 모든 현실들과 멀어지고 수학 등 형식화에 치우친 나머지 세상을 보

는 눈에 색안경을 끼워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즉 학생들을 수학과 형식이란 좁은 골목으로 몰아넣은 결과 머리 좋은 학생들이 주류경제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통찰력과 직관력 및 분별력과 멀어지고 반대로 안목과 식견이 좁아져 결국 경제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흥미를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 A. Smith 이후의 정치경제학은 종교, 철학, 역사, 사회, 정치, 인성 등 모두를 포괄하는 경제학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깊고 넓으며 또한 재미있고 연구 의욕을 끝없이 창출하는 맛을 지니고 있었지만, 주류경제학이 이러한 비경제적 요인을 모두 배제하고 경제현실을 자연현실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원래의 경제현실과 전혀 멀어지는 그래서 재미없고 무미건조한 경제학이 되어 버렸다. 이를 배운 학생들도 흥미를 잃게 되고, 자연히 경제학에서 점점 멀어지는 기현상을 낳게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즈음 지금 같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의 수요세미나는 대단히 고무적이다. 교수들의 주류경제학 연구결과를 매주 열리는 모임에서 발표, 토론하고 이를 경제학부 및 외부의 경제학자들이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임은 다른 국내 대학에서 보기 힘든 참신성을 지닌다. 특히 서울대 경제학부는 QS 등 대학평가에서 세계 제41위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들 중에는 주류경제학 전공의 세계적 수준까지 도달한 경제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미흡하지만 이번에 다음과 같은 경제학의 근본문제점(basic하고 philosophical하면서 controvertial한) 4가지만이라도 깊이 있고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넘어서는 결론을 찾게 된다면, 세계 경제학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세계적 위상도 제고될 것이 틀림없다. 4가지 중 토의제목 (1) 만이라도 집중 토의되었으면 한다.

2. 근본 논쟁점 4가지

- (1) 경제현실에 자연원리를 적용하면 왜 안 되는가?
- (2) 경제원리를 찾기 위해 경제현실에 자연과학적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 (3) 경제원리의 모습과 성격, 즉 ‘물처럼 흐른다’의 뜻은 무엇인가?
- (4) 요즘 경제학은 과연 경제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토의제목 1: 경제현실에 자연원리를 적용하면 왜 안 되는가?

경제학자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실수는 경제현실을 자연현실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찾는 방법도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데에 있다. 자연현실은 본래 존재적이어서 물리학이나 생물학의 환원주의를 동원하면 천지현황으로 묘사되는 우주의 저 먼 곳이나, 분자수준 이하로 측정되는 생물체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큰 오차 없이 이론화할 수 있다. 자연이란 지구 위의 자연만이 아니라 광대한 우주(cosmos)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우주의 크기는 태양의 반경 60억km(6.6광년)×활상완(반경 7500광년)×은하계(반경 5만 광년)×국소은하군(반경 350만 광년)×국소초은하권(반경 1억300만 광년)×대규모구조(반경 6억 광년)×다른 우주(10^{500})이고, 이 속에는 100억 광년 거리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워홀이 있고 또 상대성 원리에 의해 시간과 공간이 굴절되어 그 곳 한 시간이 지구 7년에 해당하며, 빛과 물질을 빨아 들여 다시 나올 수 없다는 블랙홀까지 존재한다. 대단히 천지현황(天地玄黃)하다.

칼 세이건(C. Sagan)의 ‘코스모스(Cosmos)’와 에드워드 윌슨(E. O. Wilson)의 ‘통섭(Consilience)’을 보면, 이러한 우주와 생물체는 모두 원소(수소, 산소, 질소, 규소, 탄소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물리환원적 일원론’으로 천지만물의 움직임을 묘사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인간의 현대 자연과학기술은 이러한 우주를 관측하고, 그 구조와 실체를 하나하나씩 밝혀내고 있으며, 나아가 이제는 실제로 태양권 밖까지 또 생물체의 나노수준 이하의 미시세계까지 항해와 탐사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물리환원적인 통섭적 첨단과학기술의 힘은 정말 위대하고 강력하며 명백하다. 이러한 자연원리에는 인간의 가치판단과 오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만일 인간의 감정, 가치판단이 개입된다면 지구 밖으로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으며 곧장 우주 공간에 낙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보면 자연현실을 대상으로 현대 자연과학이 개척한 연구방법은 실로 강력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주류경제학은 이런 자연과학의 방법을 경제현실의 분석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유희를 받는다.

그러나 경제현실에는 자연현실에서 작동하는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한편 인간의 가치, 영감, 오욕(五慾, 즉 權, 金, 食, 色, 名 등)이 거칠게 뒤엉키면서 서로 연기(緣起)하고 변전되면서 복잡한 세계가 창출된다는 면에서, 자연원리와 확연히 다른 원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오욕은 세상을 온통 불태운다고까지 말한다. 인간은 자연계의 생물이나 무생물과 달리 이성과 오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

만, 동시에 감성, 즉 정동, 감동, 변감, 감흥, 기질, 신기 등을 지니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영혼, 지각, 상상, 직관, 용기, 신념, 의지, 윤리의식 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요소들이 함께 상호 작용하면서 인간의 세계에서는 우발, 우연, 전화, 역(易, 끝없는 변화), 변형을 낳게 되고 이로써 모방, 표상, 재현, 대의, 가상의 세계가 끝없이 창조된다.

이런 인간의 사고과정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통해 몸과 분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법칙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인간 사고의 뇌확정 패턴(예컨대, 벽촌에서의 어린 시절이나 전란시에 각인된 특이하고 혼잡스런 개인의 경험, 일생 동안 겪은 복잡한 사회적 접촉 등)을 모두 뉴런, 분자 그리고 이온 수준에서 100만분의 1초 내의 범위 내에서 정확히 알고, 그 다음 100만분의 1초 후에 어떤 상태가 올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뇌보다 더 복잡한 작동 방식을 채택한 엄청나게 큰 컴퓨터는 있을 수가 없다. 컴퓨터는 본질적으로 ‘인간학(人間學)’을 알 수 없다.

토의제목 2: 경제원리를 찾기 위해 경제현실에 자연과학적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특히 현대주류경제이론의 과학적방법과 형식적모델링기법은 사회와 인간을 자연화하고 경제를 자연과 동일시하는 ‘자연동일(unity)’의 방법을 택한다. 그래서 물질만 인정하는 물질주의적 일원론을 택하며 과학성, 객관성, 통약성등으로 고도의 단순화, 이상화, 추상화, 형식화로 나아간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수량주의, 환원주의, 논리실증주의, 공리주의, 한계주의 등을 택한다. 제약하의 최대화 및 극대화를 도출하기 위해 미분, 적분 등 수학적방법을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모더니스트의 십계명과 같이 완전선호의 이행은 물론, 정태적 생산이론에서 가격의 동질성(homogeneity)와 단순성, 단조성(monotoneity), 공율성(curvature)와 대칭성(symmetry), 이윤함수의 볼록성(convexity)와 비용함수의 오목성(concavity) 등 수학적 해(解)를 도출할 수 있는 가정을 우선한다.

특히 Arrow-Debreu 이후의 형식적 모델링기법은 경제현실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어떤 경제에도 같은 기법을 적용하며 또 너무 많은 비실제적 가정을 자의로 두고, 이를 일반화하려하며, 어디서나 수리방정식에 집어넣어 수학적, 완전형식화를 추진, 모든 경제현실을 자기기법으로 해독할 수 있다는 맹목적 신봉론(fetishism)과 과도한 수학 애호(virtuosity)에 매몰된다. 케인즈는 수리경제학의 문제점으로, ‘경제분석체계를 형식화하는 상징적인 의사(擬似) 수리방법의 가장 큰 결점은, 그들이 포함하는 요인 간

에 엄격한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가정하고, 이 가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그 권위를 함께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모델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철학적 기초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혼돈되고 복잡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모델, 가설, 이상향 등을 주관적으로 함수형태로 설정하여, 도구로서 대상에 근접하는데, 이 중 확률론적 조작을 수행하는 것이 계량경제기법이다.

이러한 모델에는 동일한 사물에 대해 보는 시각이 다양하므로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 소득과 소비수준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식이 100개가 넘는다. 100개 이상의 ‘어프로치’가 있다는 것은, 그러한 조작이 과학적이라기보다 그 반대로 임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모델과 ‘어프로치’는 결국 주관적, 임의적이고, 그것을 보완하는 객관적 기초가 없다는 의미에서 ‘근사(approximation)’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무수한 ‘근사’들 사이에는 아무런 본질적, 논리적 연관이 없고, 상호 의존적인 ‘잡다’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모델링 과정에서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기호화한 언어체계를 무제한적으로 창조해서는 안된다. 연구자가 연구 목적을 잊고 모델의 기호조작에 매몰되면 연구대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며, 기호철학의 ‘구문론적 규칙’에만 유일한 관심을 갖게 된다. 즉, 원형(진실)으로부터 멀어진 모델을 순수한 언어체계와 수학적 체계로 구성, 만족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계량경제모델에 그대로 나타난다. 계량경제모델은 본질적인 경제적 운동의 카테고리를 단지 외적인, 현상적인 관계를 방정식의 설정과 그것의 수적 조작으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모델에서 설정한 경제변수 간에는 간결한 수학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으로도 보증되지 않는다. 원래 통계적 기법은 동질적이고 반복적인 사상(事像), 즉 양적 측면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질적 다양성을 매개로 하여 그 장기적 변전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는 이 기법이 적용될 수 없다. 이 때 인과(因果)관계를 수학적 함수(函數)로 엄밀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전통 주류경제학이 계량경제모델을 선호하는 것은 과학적 모델링을 추구하기 때문인데, 이는 결국 $y=f(x)$ 라는 관계식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표준화된 분석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모델을 선택하는 것, 즉 어떤 경제량 Y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또한 오차항 u 의 분포에 관해서 어느 정도를 가정할 것인가(예를 들면 정규분포를 가정할까, 그것보다 더욱 느슨한 가정만을 둘까)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경제이론에 기초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점에 대해 상세히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이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개인의 판단이 내재된다. 따라서 일정한 통계적 모델을 ‘가설’로 보면서, 그것을 현실 데이터에 조명해 검증하고, 만일 모순이 드러나면 그것을 버리고 다른 가설을 설정한다. 만일 데이터와 모순된다면 그것을 정정함으로써 모순을 추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교과서에서는 주어지지만 현실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과학적인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은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변수에 각각의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났는가의 정도를 나타낼 뿐, 그것이 일차식이 되는지, 이차식이 되는지, 더욱이 오차항의 분포형까지는 쉽게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경제현실에 ‘자연동일’의 방법을 쓰게 되면 경제원리를 창조, 작위(作爲)하게 되는데, 이 때 발견이 아니라 창조, 발명, 작위한다는 것은 사물을 현실대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연의 사유공간, 추상공간 속에 옮겨다 놓은채 갖가지 방식으로 조작해 낸다는 것, 사물의 ‘등가물(等價物)’을 인간 특유의 추상공간에서 조작하고, 조작한 대로 현실 사물을 변형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환상(phantasia)’, 즉 외관, 실재와 이데아의 그림자, 시물리크스, 사물이 아닌 이미지, 상(像)의 운동, 즉 상상(imagination)을 뜻하며, 결국 가상세계를 창조하는 극에까지 이르게 된다.

한국에서는 경제원론을 위시한 경제학 교과서 대부분에서 모델을 ‘모형(模型)’이란 용어로 상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형은 ‘항공기 모형’, ‘선박 모형’, ‘건축 모형’과 같이 실재를 규모만 축소한, 대단히 정태적인, 나아가 단순, 형식적, 소극적, 움직이지 않는 또는 비철학적인 ‘용어’이며, 분석적인, 살아 움직이는 동태적이고 철학적인 ‘개념(概念)’의 함의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경제현실은 언제나 움직이고 변화하는 생명체와 같으며, 이런 현실을 허무주의에 바탕한 동상유질적 구성물로 표현하는 모델로 현실 타당성 있게 다루려면 모델 스스로 동태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모델과 모형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물론 경제현실을 모형으로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형은 현실이 바뀌게 되면 곧 모형도 바뀌어야만 하는데 그 때 모형은 벌써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요언하면, 복잡한 경제현실에서 경제원리를 찾기 위해 자연과학적 방법만을 사용하면 가상(假想)에 빠지게 되고 현실에 없는 인위적인 그림을 그리게 된다. 아무리 요즘 주류전통경제학이 조금씩 세련화되고 이론적, 경험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학(人間學)을 멀리하는 한, 결국은 ‘바벨탑’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마치 지구 밖으로 향해하는 자연과학·기술에 인간이 개입한다면 지구 밖으로 그

대로 낙하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개입되는 경제현실에 자연과학이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한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토의제목 3: 경제원리는 ‘물처럼 흐른다’의 뜻은 무엇인가?

경제 원리는 한마디로 ‘물처럼 흐른다’. 생동, 가변, 가동한다. 자연원리는 강고, 불변, 부동해서 물처럼 흐를 수 없다. 서로 얽혀 막히고 만다. 하지만 물은 자연스레 막힌 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땅의 형세에 따라 흐름을 조절하는데, 경제원리는 이와 같이 유연하지만 자연원리는 그렇지 않다. 노자(老子)의 ‘상선약수(上善若水)’는 물론 손자(孫子)의 병법(兵法)에서도 ‘병형상수(兵形象水)’를 말하고 있다.

물이 강에 이르면 흐름이 거세어진다. 계곡을 만나고 댐에 갇히면서 또 거센 바람에 격랑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이를 넘어 더 큰 강으로, 더 넓은 바다에 이르게 된다. 원리도 마찬가지다. 21세기 들어 더 거세진 인간의 오욕과 첨단과학기술 혁신으로 인한 의식 및 구조변혁으로 인해 사회의 복잡성이 더 가중되게 보일지라도, 원리는 스스로 이에 맞춰 모습을 바꾸면서, 더 큰 도의 바다로 합류하게 된다. 원리에 고정된 모습이 없는 것은 물이 일정한 모양을 띄지 않는 것과 같다. 원리가 현실의 변화에 쫓아 그게 맞게 모습을 바꿀 때 비로소 참된 원리가 된다. 물론 물도 언제나 깨끗할 수만은 없다. 흙탕물이 있고, 독성 있고 생명을 앗아가는 강도 있다. 현실도 정치, 이념, 전쟁 때문에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오히려 불안정이 더 일상적일 수 있다. 자연은 그래도 비교적 한결 같다할 수 있지만, 인성은 경제에 관한 선과악 중 악이 더 크게 작동됨이 보통이며, 정치, 종교등과 뒤섞여 쉽게 흙탕물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찾는 경제원리는 ‘보편언명’이란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현실이 흙탕이든 순백이든, 혼란이든 안정이든, 빈한이든 풍요하든, 우리에게 이들을 해석, 설명, 예언할 수 있는 유익한 지혜를 제공한다. 이런 원리는 말이 없고(無言), 보이지도 않고(不見), 색깔도 없어(無色) 찾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사물(事物)을 보는 대로 보는 한’ 서로 부딪히면서도 질서 있게 조절되어 현실과 함께한다.

기원전 96년경에 쓰인 사마천(司馬遷) ‘사기화식열전(史記貨殖列傳)’의 다음 구절은 이런 원리를 보다 쉽게, 또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이들 물품들은, 세간에 널리 사용되는 피복과 음식이고 산사람을 먹이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낼 때 쓰는 용품들이다. 그래서 농민이 먹을 것을 제공하고, 어민과 산민

이 물자를 생산하면 공인이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고, 상인들이 유통시킨다[생산·교환]. 이런 일들이 어찌 정령이나 교화, 징벌 또는 약속 등에 따라서 하는 것이겠는가 [개입]? 사람은 각자 자신의 능력에 맞춰 힘을 다해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다[분업·소비]. 물건 값이 싼 것은 곧 비싸질 징조이고, 값이 비싼 것은 곧 싸질 징조이다[물가].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분업·직업]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으로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모여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스스로 물품을 만들어낸다[시장]. 이것이 어찌 도(원리)에 부합돼 저절로 그리되는 징험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옛날에도 생산·소비·분배·유통·물가·분업·시장 등이 서로 이어져 물과 같이 흘렀으며, 이것은 디지털화되고 생명이 중시되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부부간의 관계에도 연관된 비교우위론, 직업·계층에도 연관된 차액지대설, 금융에 관한 화폐수량설과 Gresham 법칙, 소비에 관한 Engel 법칙, 임금에 관한 임금철회설, 노동에도 관련한 Lewis 모델 등 경제원리는 물론, 나아가 속담, 격언, 사자성어, 경전 등 생활, 윤리, 생명, 사회, 인성 원리들도 나름대로 크고 작은, 강하고 약한 원리의 모습을 띄면서 함께 흘러간다. 마치 사람의 몸속에서 두뇌의 원리, 심장의 원리, 골격의 원리, 모발의 원리가 각기 다르면서도 모두 서로 조화·조정되면서 신체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우리가 찾는 원리는 모두 이런 원리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것이 천지 만물의 이치(원리)이며, 그러나 이 원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습을 달리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원리와 섞여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삶과 현실은 그런 것이며, 원리도 그런 것이다. 경제원리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경제원리는 물처럼 흐른다.’를 경제철학의 용어로 표현하면, ① 경제원리의 복잡성(複雜性)과 가변성(可變性), ② 연기성(緣起性), ③ 다양성(多樣性)과 다의성(多義性), ④ 불완전성(不完全性)과 현실간극성(現實間隙性)을 뜻한다. 이런 원리의 본질을 모르고서는 어떤 경제현실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경제원리가 분명하고, 일의적이고, 인과적이고, 완전하다면, 이것은 자연원리와 같은 것이고, 그러면 도저히 물처럼 흐를 수 없다.

이와 같이 물처럼 흐르는 경제원리를 바탕으로 지금의 경제학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원론만 해도 물처럼 흐르는 경제원리와 물처럼 흐르지 않는 경제원리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들 옥석을 가려 다시 써야 할 것이다. ‘좋은 겨자씨’와 ‘가라지’를

가려 좋은 겨자씨의 경제원리로 경제현실을 풀이하면 지금의 좁은 경제학을 넘어 ‘유(有)와 무(無)가 대립, 긴장, 상호의존관계로 공존’하는 넓고 깊은 ‘21세기 경제학’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토의제목 4: 요즘 경제학은 과연 경제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요즘 많은 경제학자들이 혹시 경제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거나, 또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것이다. 최근 경제학자들이 분석 대상이 되는 경제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그리고 너무 ‘좁게’ 생각하는 등 경제현실을 ‘바르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제학은 ‘어떤 경제현실이든 모두 표준 과학적 방법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학문’이라거나, ‘합리적 선택이나 효율, 균형, 한계, 게임 등만으로 모두 풀이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그들 사이에 질게 깔려 있다. 그러나 경제현실은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풀기 어려운 대상이라 생각한다.

인간이 만든 경제현실은 (역사·사회·정치현상은 물론) 자연현실과 달리, ‘복잡, 변전, 연기’되면서 대단히 ‘거칠고’ 또 ‘깊고 넓게’ 흐른다고 생각한다. ‘생선 장수의 좌판 위에 있는 생선과 같은 것’이거나 ‘사실 하나하나를 모두 알고 이들을 모으면 전체를 알 수 있다.’(L. v. Ranke, J. Locke 같은 실증주의자들의 주장 등)와 같이 그리 쉽게 또는 안이하게 보아서도 결코 알 수 없는 넓고 깊은 바다와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현실을 대상으로 경제학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때로는 접근할 수 없는 더 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고기를 잡는 것과 비교’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떤 고기를 잡아 올릴 것인가는 때로는 우연에, 그러나 대개는 바다의 어디를 선택하여 낚아 낚시질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낚시도구를 사용하는지에 좌우될 것’(T. Parkins, B. Croce)이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의 인과적 지향의 선택체계 즉 끝없는 사실의 바다에서 자신의 목적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 환원하면 무수한 인과적 전후관계에서 오직 그런 것만을 추출해 내어야 하는데, ‘이때 그 중요성을 가르치는 기준은, 그런 전후관계를 자신의 합리적인 설명과 해석의 모델에 짜 맞추는 연구자의 능력이며, 여기서 객관적인 연구자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역사, 사회, 경제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로 인하여 제한되어 있는 시야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과거에 투사하여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심원하고 지속적인 통찰력을 지닐 수 있는 사람들(E. H. Carr)’, 즉 원리발견의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환원하면 역사, 사회는 물론 경제현실도 바다와 같이 넓고 거칠어서, 그 속에서 큰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그리 쉽거나 단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랜 경험, 레이더 장비와 같은 새로운 기술, ‘깊은 사려와 판단력’(Cicero)까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격량이 몰아칠 때는 더욱 그러하다. 동네 개울에서 붕어를 잡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인식의 한 예로, 장자(莊子)는 ‘인간이란 우물 안의 개구리나 여름벌레, 독사 처럼 시간, 지역, 환경, 교육 등에 의해 국한된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물을 볼 때, 빨간색 안경을 쓰게 되면 빨간색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빨간색 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서양의 칸트(I. Kant)도 ‘순수 이성비판’에서 ‘인간은 외부의 대상 자체를 직접 알 수는 없고 오직 감각을 통해 지각한 것을 우리 마음의 형식을 통해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들 외에도 흄(D. Hume)은 ‘오성에 관하여’에서, 데카르트(R. Descartes)는 ‘성찰’에서, 베이컨(F. Bacon)은 ‘신기관’에서, 루소(J. Rousseau)는 ‘에밀’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현대 신경과학에서도 ‘사람은 보이는 것(see)을 자기 나름의 필터로 거르고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 그들을 본다(watch)’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 영명한 철인들이 제시한 여러 금언들은 현실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여러 다른 생각과 방법들, 환언하면 주체인 인간이 객체인 자연·사회·인간 자체를 인식하는 다양한 논의들, 즉 존재론, 결정론, 가치론, 인성론, 인식론, 방법론 등 철학방법론이란 터널을 경유해야만, 색안경을 벗고 바다와 같은 깊고 넓은 경제현실 속의 근본 원리(principle)에 당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전을 보면 이러한 생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고전이야 말로 옛날이나 지금에도 의미를 지니는 ‘세상의 원리와 처세의 지혜를 담은 영감어린 정전(正典)’이다.

역사·사회학자들은 이상과 같은 역사·사회·경제 현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론화하거나 정책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 백화제방의 경제학설 중 사회경제학과나 제도학과 등도 그들의 사상을 정교하게 이론화하지 못했으며, 또 리카도(D. Ricardo)나 마샬(A. Marshall) 등 경제학자들은 이론화는 했지만, 정책화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다행히도 스미스(A. Smith), 마르크스(K. Marx), 케인즈(J. M. Keynes) 같은 소수의 경제학 대가들은 그들이 처한 시대의 현실에 맞는 ‘구조와 조건을 갖는 이론’을 찾아내고 이를 정책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경제현실의 복잡성과 특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연과

학적 사고의 틀에 빠지지 않고, 제도는 물론 인간의 영감, 감성, 투쟁, 전쟁까지도 고려하는 지혜를 지녔었다. 그들은 고전물리학과 수학에 의존하여 과도한 추상화·형식화·단순화를 추구하거나 형식적 모델을 구축하지 않았다. 너무나 철저히 추상화한 나머지 경제현실과 전혀 접촉할 수 없게 된, 그래서 논리학이나 언어학, 문체기술론 안에 숨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느 학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은 전제와 가정, 목적과 범위, 변수선택과 방정식, 연구방법 등을 포함하여, 한마디로 여러 철학방법론을 알고 이론의 전체성을 보는 능력이 있었다. 그 중에도 중요한 것은 ‘인과적 지향의 선택체계’, 즉 경제현실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들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통찰력이 있었다. 이들의 선택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는 이론으로까지 연결되었고, 그래서 여러 세대에 걸쳐 경제를 개선, 발전 또는 변혁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즉, 경제학은 어느 학문에서나 마찬가지로, ‘경제현실을 추상화 또는 단순화하는 작업’이고 거기서 ‘경제현실을 대표하는 보편언명을 찾는 작업’이긴 하나 ‘경제학은 합리적인 선택, 효율, 균형, 한계, 게임 등만을 다루는 학문’이라거나 ‘경제현실을 과학적 방법으로 단순화하는 학문’이란 좁은 풀이를 해서 는 ‘경제현실이란 너무 안이하게 또 좁고 단선적으로 다룰 수 없는 깊고 넓으며 복잡한 본질을 지니고 있으며, 좁은 색안경을 벗어야만 보이는 대상’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경제 원론 등을 보면 경제학을 다음 세 가지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것 같다. 즉,

- ①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적 선택에 관한 연구다.”
- ② 경제학은 “경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 ③ 경제학은 “경제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①과 같은 정의는, 1932년 L. Robbins의 『경제학의 본질과 의미에 관한 에세이』에서 유래된다. 이런 신고전파적 접근은 무한한 욕구와 자원의 희소성을 기본 전제로, 합리적 선택, 효율(편익/비용), 균형 등을 기본으로 삼는다. 그 후 주류경제학은 이런 접근이 가장 옳은 단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고(Lucas), 자연과학적 방법을 경제현실에 그대로 원용, 결국 ‘우주, 인간만사’까지 모두 다룰 수 있다는 ‘경제학 제국주의’(Becker)에 이르게 된다. 더욱이 ‘경제학이란 경제학자들이 하는 학문’이라는 엉뚱

한 자기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②와 같은 정의는, 위의 ①에 비판적이다. 산업사회가 패러다임적 변혁을 겪고 있는 지금의 경제현실은 ①과 같은 좁은 영역을 훨씬 넘어선다고 본다. 경제현실은 합리적 선택이나 효율, 균형 등만으로 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경제현실은 자연현실과 달리 더 복잡하고 다원적이기 때문에 선인들이 말한 ‘백화제방’의 여러 경제학설을 ‘이종교배’하여야만 풀어질 수 있다고 본다. 경제현실에는 경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 사회, 인문적 요소도 서로 연기되면서 존재함은 물론 생산, 소비, 분배, 유통, 화폐, 물가, 경기변동, 무역 등 경제문제 내에도 비경제적 요인이 함께 내재한다고 본다. 분야별로 다 다르겠지만 특히 분배에는 인간이 더욱 깊이 내재된다.

따라서 이런 경제현실에 자연과학적 방법을 과도하게 적용하면 즉, 복잡한 경제현실을 몇 개의 가정으로 너무 쉽게 또 무리하게 추상화하면 현실에서 떠난 ‘가상’을 그리게 된다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나 효율, 균형 등도 물론 중요 원리(개념)이지만 이들을 바탕으로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모든 사물을 무리하게 또 좁게 처리하게 되면 경제현실 모두가 왜곡 해석 된다는 것이다. 현실(reality), 즉 사실(fact)이 가상(fiction, phantasia)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

③과 같은 정의는, 위의 ②와 궤를 같이한다. 다 같이 경제현실을 중시하고 경제문제를 경제현실에 맞게 처리하려 한다. 그러나 ③은 경제원리의 뿌리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경제원리는 옛날 봉건농촌사회에도 있었으며, 경제학자는 물론 철학자, 현인 또는 일반인들도 생활 속에서 ‘진실근사’한 경제원리를 찾아낸 것의 종합이다. 이런 경제원리는 현실을 반영하는 ‘보편언명’이므로 이런 경제원리를 경제현실 속에서 찾아내어 모은다면, 이들을 바탕으로 경제현실을 위의 ①, ②보다 더욱 진실근사하게 풀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좁은 경제학을 경제철학적 방법이란 긴 터널을 경유하는 ‘새로운 경제학연구방법론’으로 개혁해야만 경제제민, 융합, 창조, 혁신, 생명, 사랑까지도 다룰 수 있는 ‘21세기 경제학’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럴 때 비로소 교수들의 강의나 연구가 더욱 현실에 부합하면서 내용이 재미있고 풍부해질 것이며, 학생들의 안목과 식견이 깊고 넓어질 것이고, 경제정책의 현실적용성도 제고될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463-81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번지 아이파크 302동 904호

전화: 010-5141-3512

팩스: 031-714-9482

E-mail: wooheepark@hanmail.net

참고문헌

- 박우희(2014): 『경제원리는 물처럼 흐른다: 자연, 사회, 경제철학 및 인지과학적 접근』,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우희(2015): ““한국경제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경제포럼』, 한국경제학회, 8, 1, 5-17.

